

북스

Books

23가지 테마로 신자유주의 신랄 비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를 반성하고 세계 경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책이 나왔다.

3년 전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세계화와 개발도상국의 불편한 관계를 규명했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들('그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이면을 들여다 본다.

책은 지난 9월 '23 thing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 먼저 출간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책은 23가지의 테마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와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대비시켜 신자유주의의 주장과 거기 대한 반박을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 된 나라 없다' 등 자신이 기존에 주장해온 것들을 신랄하고 풍성한 사례로 풀어낸다.

대표적인 반(反)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저자는 자유시장 정책이 2008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었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 전부터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장이 둔화되고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전작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처럼 이번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사를 들어 명쾌한 논리로 풀어간다.

'인터넷보다 세태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편



저자는 "자본주의를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다"고 쓰고 있다. 지난 9월 4~5일 광주에서 열렸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광주일보기자사진>

에서는 세태가 인터넷보다 왜 중요하지 통계와 자료를 통해 증명한다.

세태의 등장으로 주부들의 가사노동 부담이 크게 줄면서 여성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한 데 비해, 인터넷은 속도 면에서 보면 정보가 이른 혁신만큼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19세기 전보 서비스는 대서양을 건너 소식을 전하는 데 2주 걸리던 것을 7~8분으로 2500배 단축시켰지만 인터넷은 팩스에 비해 고작 5배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저자는 인터넷 시대라며 소위 지식경제, 탈산업사회 등의 이름으로 제조업을 몰아내고 국민경제를 약화시켜서 안 된다는 자신의 지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이를 들었다.

책은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23가지'

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자유시장의 아름다움은 없다는 것이다. 또 인간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금융위기로 만신창이가 된 세계 경제를 재건하려면 우선 자유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서 벗어나 지금보다 규제가 강화된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장려,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 균형 맞추기, 정부 역할 강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거시경제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겪는 경제현상의 궁극적 원인을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해 쉽게 읽힌다.

<부키·1만4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예술가들의 대화

임영주·김지연 지음

예술가들의 예술세계 전부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설명 작품을 보고 감상했다라도, 그것이 예술가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은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다.

이런 경우 예술가를 만나 그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이야기만한 것이 없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진솔하고 쉽게 때문이다.

신문사에서 미술담당 기자로 있는 임영주씨와 기획자 김지연씨가 엮은 '예술가들의 대화'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한 책이다.

원로·중견작가 1명과 젊은 작가 1명으로 구성된



신구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예술의 의미

10쌍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대화하며 예술, 작업에 대한 생각과 인생관 등을 털어놓은 이야기를 정리했다.

이 대화는 애초 2008년 가나아트센터 25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원로·중견 작가와 신진 작가 12팀이 참여한 전시 '통섭'전이 씨앗이 됐다. 이 전시회를 더욱 의미 있게 하고자 전시를 기획했던 김지연씨가 작가들을 모아 뜻 깊은 대담 자리를 마련했고 책은 그때의 대화를 '예술가, 장르를 말한다' 등 3개의 장으로 엮어낸 것이다.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는 부부 영상설치그림인 '뫼'를 만나 사진과 영상을 화두로 이야기를 나눴다. 뫼는 경쟁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배병우는 "예술가로서의 실력을 따지기에 앞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며 "느긋하게, 밥 세 끼 먹고 작업할 수 있는 동안 생기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작업을 할 것"을 당부한다.

은유적이고 풍자적으로 사회 현실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안구철과 양아치는 자신들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여성미술가 윤석남과 이수경은 머리를 쓰는 작업이 아닌, '말'이 하지 않고 몸 바스라지게 작업하는' 미술의 힘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외에도 최종태와 이동재, 박대성·유근택, 고영훈·홍지연, 이종구·노순택, 임옥상·김윤환, 사석원·원성연, 홍승혜·이은우가 자신들의 작업부터 삶의 자세, 인생관까지 폭넓은 주제로 나눈 진솔한 대화를 들을 수 있다.

<아트북스·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분단의 아픔 등 다룬

'출렁이는...' 새출간

분단의 아픔과 이산가족 문제를 주제로 다뤄온 이호철(78)씨의 장편소설 '출렁이는 유령들'(전 2권)이 30년 만에 재출간됐다.

이씨는 1974년 봄 이 작품을 '역력'(逆旅)라는 제목으로 문예지 '한국문화'에 3회 가량 연재했다. 그러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연재를 중단했으며 이후 석방돼 2년 정도 연재하고 1978년 세종출판공사에서 한 권 짜리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소설은 1970년 암흑한 현실 속에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의 역사, 이로운한 일본인들과 한국인의 결연과 혼혈아 문제, 그것들과 연결된 한국, 일본, 북한의 삼각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글누리·각 권 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전략사전-세계 최고 이론가들의 220가지 생각도구=경영학 박사이자 전략전문가인 랄프 쇼이스가 1912년 전략개념의 탄생에서 경영학 연구의 선구자 피트 드러커, 전략 경영의 아버지 이고르 안소프, 경영학의 예언자 프라할라드에 이르기까지의 전략이론을 분석했다. 경영전략 세계 최고 이론가들의 선구적인 220가지 생각 도구를 체계적으로 분석, 사고능력의 비법을 제시한다. <육당·2만8000원>

▲리아의 나라=미국에 정착한 한 소수민족 가정이 겪게 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인종 간의 문화 충돌을 조명한다. '간질'이라는 사소한 병을 두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미국 의료진들과 가장 전통적인 자신들의 풍속 치료법을 병행하길 원하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뇌사상태'라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는 과정을 세밀하게 다뤘다. <월북·1만6800원>

▲스프링=진화심리학, 행동경제학, 인류학, 생물학, 뇌과학 등을 넘나들며 인간의 무모한 감정 정도도 알고 있는 '충동'이 어떻게 폭발력 있는 성공의 변수가 되는지를 설명한다. 심리학자인 저자 닉 태슬러는 책제목인 '스프링'(spring)을 기회를 낚아채는 충동의 힘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회를 재빨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충동의 힘이 성공과 직결된다고 말한다. <흐름출판·1만4000원>

▲조선기행록-100년 만에 만나는 일본인 지질학자의 한반도 탐부 답사기=일본 메이지시대의 대표적인 지질학자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과 같은 산맥명칭과 그 체계를 장안한 인물인 고토 분지로의 대표작인 글 두 편 '조선산맥론'과 '한반도기행'을 발굴해 엮었다. 그가 직접 작성한 컬러 지질단면도와 지질도 뿐만 아니라 탐사지역의 경관, 산악, 역사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 글과 당시의 사진 99컷을 실어 생생한 상황을 보여준다. <푸른길·3만원>

▲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집 3=박하익씨의 등 굵길 여학생만을 몰고 도망치는 괴한을 다룬 유쾌발랄한 추리극 '무는 남작'을 비롯해 인기 절정의 여가수를 정교하게 모방한 안드리아들이 몸을 파는 이야기를 담은 문지희씨의 SF 하드보일드 '크라이 팻' 등 10편의 단편을 실고 있다. 박지현·전건우·정명섭·최영근씨 등이 본격 추리부터 사회적 문제까지, 국내 추리소설의 전반적 흐름을 보여주는 다양한 색채의 작품을 선보였다. <황금가지·1만원>

▲누가 강으로 떠났는가= '한국문화'와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목포 출신 김지수씨의 소설집. 버지니아 울프의 절망적인 삶을 떠올리며 가슴앓이를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표제작을 비롯해 여덟 편의 단편을 모았다. 소외된 계층 보 통사람들의 진실된 사연들을 섬세하고 서정적인 문체로 훑고 있다. <문학나무·1만1000원>

▲지도로 보는 세계지도의 비밀=세계지도 구석구석에 숨겨진 재미난 이야기들을 자세한 지도와 그림, 그래프 등을 통해 들려준다. 낱짜 변경선은 왜 직선이 아닌지, 터키는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미국의 '데스밸리'는 어떻게 해서 '죽음의 계곡'이 되었는지 등 세계지도보다가 생기는 의문점 등을 해소해준다. <이디미디어·1만2000원>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를 착용하면 매우 잘 들립니다.
국제보청기는 착용 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보청기의 가격은 저렴하여 고객님의 만족을 드립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 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